

반세기 오색령을 넘어 양양사이클경기장 개장



반세기 오색령을 넘어
양양사이클경기장 개장

반세기 오색령을 달리며
양양의 기상을 드높여온
사이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양양사이클경기장이 1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양양인의 드높은 기상과
올곧은 성품을 대변하는
양양사이클이 새 지평을
열며 힘찬 페달을 밟는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최대영

양양사이클경기장 드디어 개장

한국사이클 산역사 마침표...19일 준공기념식

연중 1만2천회 이용 예상 경기부양 효과 기대

아시아선수권을 치를 수 있는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착공 4년 만에 준공돼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군은 오는 19일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에 조성된 양양사이클경기장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1등급 공인 벨로드롬경기장인 양양사이클경기장은 지난 2008년 국비 78억, 도비 47억, 군비 13억 등 총 259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3,993㎡, 트랙규격 333.33m, 1,350좌석의 최신식 규모로 준공됐다. 주변에는 보조운동장과 축구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날 오전 11시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최문순 도지사, 정상철 군수, 정문현 국회의원, 구자열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김인규 KBS사장 등 관계자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국내 최신식의 사이클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군이 사이클의 고장이라는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을 알리는 랜드마크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렇다 할 스포츠마케팅이 없었던 지역에 새로운 스포츠마케팅의 기폭제로서 경기부양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대효과

양양사이클경기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스포츠마케팅의 전환점을 가져온다는데 의미가 크다.

현재 서울시청 사이클팀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대한지적공사 사이클

팀도 훈련장으로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최고 사이클팀들이 우리군으로 몰려들고 있다.

선수 1명당 하루 평균 벨로드롬을 40~50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중 양양사이클경기장의 이용횟수는 1만2천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기 부양효과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식대회는 물론 여름에는 전국 실업팀들과 경륜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10억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점쳐지고 있다.

현재 전지훈련중인 서울시청 사이클팀도 양양관내에 숙박하며 훈련에 나서고 있어 지역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장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이클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양양~중국 대련 전세기 뜬다

양양공항 활성화 청신호...주 2회 정기성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후 처음으로 국제선 2개 노선이 운항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5월23일 중국 전세기 항공사업자인 요녕 해양국제여행사와 양양~중국 대련간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 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나서기로 했다.

운항기간은 6월22일부터 내년 6월21일까지로 1년간 주 2회(왕복 4편) 총 105회가 정기적으로 운항할 계획이다.

중국 남방항공이 투입되는 양양국제공항~중국 대련국제공항 노선은 비수기에는 118석 규모가 운영되고 성수기에는 178석으로 좌석규모를 확대 운영한다.

운항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대련공항은 오후 2시30분, 양양공항은 오후 5시45분 출발하고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정도 걸린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6월 22일 운항에 맞추어 본격적인 운항을 앞두고 중국 현지 여행사 및 언론사를 초청해 여행상품 구성과 홍보 등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국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중국 대련노선은 그동안의 전세기가 부정기성으로 운항된데 반해 양양국제공항 개항 후 처음으로 한 노선에 주 2회 정기적으로 운항될 예정이어서, 향후 노선이 안정되면 정기노선 개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항공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해 7개월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 대련노선의 정기성 전세기 운항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 북경과 상해, 일본 오사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의 경유지 개설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다, 강원도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인 중국 지린성과 안후이성과의 국제항로 개설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 대련은 라오닝성에 위치하며 신의주와도 가까운데다 바다와 접해 있어 풍부한 해산물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단거리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대련노선이 본격 운항하며 총 2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개항한 하얼빈 노선은 총 18편 운항에 2,446명이 이용해 89.9%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신규 취항 항공사에 각종 사용자 면제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에 신규로 취항하는 항공사는 그동안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하던 착륙료와 조종료, 정류료 등을 2년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21개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우리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열어



우리군의회(의장 오세만)는 지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군의회 현장점검반은 오세만 의장을 총괄반장으로 의원 6명, 직원 5명 등 총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반은 16일 오전 송천리 떡케헨터 건립사업지를 시작으로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송이밸리 쥬트랙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장례식장 지원사업 등을 둘러봤으며, 특히 양양 연어 가공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셀몬푸드를 찾아 생산 과정을 견학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국민여가 캠퍼장 조성사업지와 하정 조대 전망대 설치사업,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 봉수대 구름다리 설치사업 등을 점검한 뒤 서면 영덕리와 북평리 동서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군의회는 이틀간 총 21개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오세만 의장은 “주요 현안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만큼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하게 관리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들썩이는 물가잡기 총력

서민경제 안정화 캠페인



우리군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근 들썩이는 물가잡기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5월29일 오전 10시 30분 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 시작 전에 속초YWCA 소비자정보센터, 양양군청 직원, 양양시장조합원 등과 함께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양양재래시장 이용 홍보 및 우리농산물 이용 홍보, 물가안정 및 원산지 표시 준수, 가격표시제 홍보와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등 홍보 전단지 배포하며 서민물가 안정화를 유도했다.

이날 참여한 공무원들은 캠페인이 끝난 후 지역농산물 및 재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재래시

장 체험행사에 적극 동참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에 조성해 나갔다.

또 각종 행사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기로 했으며,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물가안정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격표시제 정착과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1년 11월 9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가운데 올해도 물치손칼국수, 춘천달걀비, 다운정식, 너래바우 등 4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푸른 해변이 피서객을 부른다”

명사십리 양양해변 7월13일 개장

명사십리 양양해변이 오는 7월13일 일제히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5일 정상철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해변 운영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고 올해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양양해변은 낙산해변을 비롯해 설악, 하조대, 오산, 남해3리, 지경해변 등 일반해변 6개소, 물치, 정암, 동호, 기사문, 잔교, 동산, 죽도 등 마을해변 13개소 등 모두 19개소로 8월26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양양해변에서 다채로운 해변이벤트가 마련돼 피

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낙산해변은 피서철 절정인 7월말~8월초 이벤트체험, 공연, 익스트림 스포츠 등 이전보다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하조대 해변에서는 ‘바캉스를 하조대 해변에서’라는 주제로 맨손조개잡이, 오징어잡이,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이 열린다.

이밖에도 정암해변의 맨손조개잡이 체험, 동호리 멸치후리기 체험, 죽도해변의 어린 모래톱 축제, 인구해변 어울림축제, 남해3리 해변 여름축제, 갯마을 ‘와! 여름해변이다’ 축제, 원포리 한여름 축제, 지경리 여름해

변 축제 등 소규모 마을해변에서도 다채로운 이벤트가 잇따를 전망이다. 올 여름해변은 개장기간동안 일반해변은 자정까지, 마을해변은 오후 10시까지 개방되며 수영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군은 올해는 해변에서 파라솔 설치를 놓고 피서객과 운영 주체간의 잦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해변에 개인 파라솔 자율설치구역을 정해 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드러난 파라솔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오색케이블카 재검토 의견 전달

추진위 “근거 없는 잣대 철회” 촉구



군은 이에 따라 탑승객 수 62만명과 총공사비 458억원, 탑승요금 1만 3,200원을 제시한 그동안의 산출내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우리군이 최근 케이블카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실시한 경제성 검토 결과 오색케이블카가 낮게 나오자 환경부에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 5월25일 환경부에서 의견을 전달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이 제시한 조건이 일부라도 반영될 경우, 경제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크게 높아져 전국 7개 시군의 경제성 순위가 바뀔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이날 환경부가 마련한 케이블카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해 환경정책평가원의 경제성 검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케이블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오색케이블카가 이처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탑승객 수요예측에서 오색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를 양양과 오색방문객을 합친 72만1,342명으로 추산해 놓고 중복방문객 예방차원에서 평균을 내 36만671명으로 단

순화해 산정한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산정한데다 탑승요금도 순환식임에도 불구하고 순환식과 왕복식을 평균 내 1만1,685원으로 적용한 것도 잘못됐다고 꼬

집었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지난 6일 산화한 순국선열의 넋 위로

지난 6일 제57회 현충일을 맞아 설악관 각 시군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 우리군은 이날 오전 9시40분 현산공원 충혼탑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송, 육군

2003부대 조총수의 조총발사 등이 진행됐으며, 일출예식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00명을 대상으로 위로연이 열렸다.



또 이날 추념식에서는 무공수훈자회 김주호씨를 비롯해 전몰군경유족회 함종권, 전몰군경미망인회 김갑인, 상이군경회 윤교한, 고엽제전우회 김시풍, 6.25참전전우회 정현숙씨 등 6명에게 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여름 에너지절약 조기 시행

냉방기순차유희·벡타이안하기등

우리군은 올 여름 에너지 절약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때 이른 이상고온 현상과 발전소 가동중단 등으로 어느 해 보다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실시하던 에너지 정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4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전년 대비 5% 절전의무화, 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 냉방기 순차 유희(30분씩 3회)가동, 냉방온도 28℃로 제한, 에너지 절약형 의류 입기, 벡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도 추진한다.

또 숨은 낭비전력 찾기 운동으로 공공기관내 화장실의 손 말리는 온풍기 제거, 화장실 비데에 대기 전력 차단장치 부착, 공공부문 조명 자동소등 시스템 설치 등 절전

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대형건물 냉방온도제한(26℃) 및 순차유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 가동 사례를 집중 점검하며 관내 아파트 1곳을 선정, ‘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행사를 추진하고 범 군민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하는 대기전력 절감운동을 펼쳐 자율절전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한다

우리군 마일리지제 도입 실행

우리군이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스톱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이어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 민원처리 간소화에 나선다.

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한이 설정된 민원에 대해서

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도입, 한 단계 높아진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1층 민원실 입구에 안내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관제와 연계해 민원처리 법정처리기간이 있는 292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단축 시 담당자별로 마일리지 부여,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연말에 시상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에 민원처리 기간단축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민원인

이 곧 고객’이라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민원인을 응대하며 법정 민원처리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마일리지제는 빠르게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 시에는 지연일수 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점수 누계 최고득점 직원을 선정해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670-2241

양양시내 전선지중화 미관 개선

전신주 64기 철거...이달 말 완료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양양시내 중심 테마가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선지중화 사업은 우리군과 한국전력공사, KT 등 6개 통신사가 협약을 체결, 2011년 5월부터 추진에 들어가 양양전통시장 주변과 새한공업사~연창리 무지개주유소까지 1.5km 구간의 옥외전선을 일제 정리하고 있다.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선관 지하 매설공사는 완료한 가운데 변압기,

피뢰기 설치 및 각 가정에 전선을 인입하는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양양시내 미관을 해치던 전신주 64주가 모두 철거돼 양양시내 중심가로의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전선 지중화사업이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완료되도록 해 올 여름 양양군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에게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에 나서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670-2160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낙산사 이벤트 즐거움 선사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낙산사는 지난 5월28일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했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주제로 거행된 이날 봉축법요식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축사, 찬불가, 내빈헌화 및 관불의식,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년고찰 낙산사(주지 무문스님)는 이날 오전 11시 원통보전에서 무문 주지스님과 법인 스님, 정상철 군수, 민병

희 강원도교육감, 오세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낙산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욕불식’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원통보전에 마련했으며, 의상봉사상 수여식도 가졌다.

이날 낙산사는 가족과 함께 찾아온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팝콘 나눠주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어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낙산사를 찾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은 조선시대 원형복원에 따라 지어진 빈일루를 찾아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안식을 하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무문 주지스님은 “모든 사부대중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정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광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축원했다.

여자배구 사상 첫 우승

제47회 도민체전 주부선수 9명 출전

우리군의 여자배구가 강원도민체전 출전 사상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제47회 강원도민체전 2부에 출전한 우리군 여자배구 대표팀은 배구 불모지라는 악조건을 딛고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단이 일치단결한 팀플레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지난 12일 치러진 예선전에서 인제군을 2-0으로 완파한데 이어 결승전에서도 평창군을 2-0으로 격파하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해당화클럽(회장 이수남)과 피닉스클럽(회장 나호코) 등 2개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대표선수 9명을 꾸려 이번에 사상 첫 우승을 일군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주부들로 구성된 대표팀은 선수들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팀플레이를 완성하

기 위해 매일 피나는 연습을 했으며, 속초고 배구선수 출신으로 올해 생활체육 지도자 2년차인 김현기 코치의 탁월한 지도력이 더해져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다.

이번에 참가한 만언니 박은윤씨(49)는 “생활배구로 시작한 것이 우승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배구로 건강도 다지고 지역의 명예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양우체국 어려운 이웃돕기

양양읍 전모할머니 매달 지원

양양우체국(국장 김간철)이 우체국에 금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다.

양양우체국은 지난 15일 양양읍 남문리에 사는 전모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전모 할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손녀를 키우고 있지만 후견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양우체국은 이날 문종빈 물류과



장과 관리사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매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전문가 / 최대영의 우리고장 돋보기



“올곧은 기상 떨치며 위상 드높여”

제34회 현산문화제 성료...군민단합 다져

제34회 현산문화제가 우리군의 올곧은 기상과 위상을 드높이 농악행렬, 양주방아사 및 대표수군만호 행차, 신석기 가정행렬, 낙산전투무용극 공연에 이은 군민노래자랑은 군민들이 한데 뭉쳐 방에 떨치는 계기를 마련하며 군민화합의 다졌으며, 양양군민 10여 명의 전통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로 인기를 끌었고, 경축문예행사과 전시행사가 현산문화제를 열기 속으로 이끌었다. 올곧게 더하고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향토제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현산문화제 개막식에서는 우리군민의 최대 소원인 9월에는 육상, 배구, 축구, 수영, 달리기 등 12개 종목이 남다른 도전과 각 경기장에서 열전을 펼치며 군민단합과 건강증진 결과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됐다”며 “양양인의 기상과 성품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전 계승해 나가겠다”고

주민이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3강

다문화DNA, 미래를 연다

밀레니엄양양아카데미 강좌의 강사로 나선 방송인이자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인 하일(로버트 할리)씨는 ‘다문화 DNA,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 먼저 다가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가 많고, 특히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편과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결혼 현황을 보면 2002년 1만여 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3만50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도 2002년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일본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2002년 단 두 명에 그쳤던 것이 전체 순위에서 4번째로 올랐다. 강원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양군에도 100가정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부군수님을 통해 들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다문화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더 가져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라=제가 한국에 처음 온 날 부산을 거쳐 대구로 왔다. 처음으로 외국 땅에 온 것이었다. 미국에 살 때도 고향인 유타주를 포함해 주변의 5개 주 정도를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제가 대구에 도착한 뒤 한 마트에 갔다. 그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4강 안내

- 일 시 : 2012. 6. 27 (수) 15:00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 2층
- 강 사 : 류제승 육군 제8군단장
- 강연주제 : 2012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공감



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올해 현산문화제는 군악대와 제등행렬, 영신 열 등 전야제의 다양한 볼거리로 흥을 북돋웠다. 특히 전야제 행사로 열린 시가행진과 청성풍물패, 쟁기동 농악, 사물놀이 공연, 어우러지며 인기 가수 초청공연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했다. 8일 개막식에 앞서 열린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은 양양의 기상을 만 (문화상 시상, 축포, 헬기축하 비행, 특공무술, 민속놀이 등이 펼쳐져 재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전통민속체험장이 다채롭게 열 며 현산문화제는 군민노래자랑 등 대부분의 공연을 CJ헬로비전이 현산문화제위원회와 함께 주관해 진행하면서 공연의 내실을 시업인 오색케이볼카 설치사업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해 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마지 전진을 기원했다. 고흥달 현산문화제위원장은 "올해 현산문화제는 전통과 현대문화를 잇고 승화시키는 지렛대 역할로서 군민단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런데 아이들이 자꾸 '헬로우', '헬로우'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나를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계속 불렀다. 그래도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그 후 외출을 할 때면 때면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저를 불렀다. 나중에는 정말로 힘들었다. 저 사람은 외국인이고, 난 한국인 이라고 선을 긋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상황은 식당에 가도, 마트에 가도, 또 다른 어떤 곳을 가더라도 비슷했다. 외국인이 라서 문화적 차이가 있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 을 것이다. 저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울 때 정말 행복하다. 나 를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느 낄을 받기 때문이다.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 는 것이 먼저다.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도 인 정해야 한다.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는 말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한국식 으로 하면 되는데 방식이 어렵다.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목적과 목표 기억하고 대 화하는 게 중요하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다.

여러분도 우리의 이웃인 다문화가정과 자 연스럽게 친구가 돼서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 들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게 곧 세 계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글로벌 마인 드인 것이다.

▲한국 정착을 위한 난관인 언어문제=다

문화가정은 언어문제, 즉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광 주에서 택시를 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할리 씨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도 베 트남 아내를 둔 다문화가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뒤 택시기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 옆에 아주 유명한 사람 있 다'고 말했지만 베트남 아내는 전혀 알아들 지 못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아내에게 "다 음 달에 베트남에 간다. 어머니를 볼 수 있다" 며 차근차근 얘기를 건넸다.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였다. 그 렇지만 국적이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택시기 사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의사소통 이 되지 않음에 따라 다문화가정은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 은 데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약에 여러분들도 중매결혼으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게 되면 어떻겠느냐. 말 도 통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반면 좋은 점도 있다. 자식 들은 자신의 부모가 하는 두 개의 언어를 배 우게 된다는 점이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25. 아기재롱보기

등기 당기 당기 당	어디 보자 금자동아	섰구나 섰어 우리 아가
등기 등기 어디 보자	여기 보자 금자동아	띄었구나 띄었어 이리 이리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구 내 손자야!
어여(어서) 웃어라 잘 잘 잘 커라.	우리 아기 옥동자야 장군이다 장군.	

산나물 웰빙축제로 호평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린 서면 갈천리 치 래마을 산나물 축제가 다채로운 산촌체 험을 선사하며 웰빙축제로 호평을 받았

다.

지난 5월26~27일 이틀간 갈천분교에 서 개최된 산나물 축제는 산나물 채취체 험과 갈천리 약수 마시기, 구룡령 옛길걷 기 등 지역특색을 소재로 한 이벤트가 인 기를 끌었다.

이날 체험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마솔 곤드레밥이 무료로 제공돼 인기를 끌었 으며, 축제기간 중에는 치래마을에서 생 산된 표고버섯, 명이나물, 곰취 등 자연산 나물이 전시 판매돼 발길이 이어졌다.

“한마음으로 하나 됐어요”

제13회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 성료

제13회 양양군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가 현충일인 지난 6일 오후 1시30분 남대천 둔 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1,3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 해 남대천 제방도로를 따라 돌아오는 5km 코 스를 함께 달리며 지역화합을 다졌다.

이날 한마음 달리기 대회에는 가족단위 참 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뛰며 건강도 지 키고 지역발전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억의 철문화 축제’ 개최

서면 장승리 6월30~7월1일까지

우리나라 철광의 주산지였던 서면 장 승리 철산마을이 올해 ‘추억의 양양 철 문화 축제’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 고 있다.

철문화 축제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 지 이틀간 서면 장승리 353-25번지 일 원에서 폐광으로 인해 낙후된 마을 이미 지에서 탈피해 새로운 관광명소로써 탈 바꿈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양양철광의 역 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영화 ‘알바트 로스’의 촬영지이며 다른 지역에서 경험

할 수 없는 철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 소개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양양군 의 지원을 받아 열린다.

철문화 축제는 관광체험, 철가루와 자 석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체험, 자석 달 리기 대회, 거꾸로 가는 모래시계 만들 기 체험, 철부지 철들기 체험, 카바이트 와 간드레 체험, 추억의 보물찾기 체험, 장승리 별보기 체험, 미꾸라지 잡기 체 험 등 다양한 현장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우리군 추진단 설치...상시 지원체계 구축



우리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한다.

군은 기계화가 될 뻔 밭농사 및 과수원의 불철 일손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우선 300여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해 배, 복숭아 적과작업 등 영농일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설

치해 상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과약, 공무원, 군부대, 기관단체들에 지원요청을 해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사업, 사회봉사명령자 농촌지원 등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번기 동안 적기 농사정보 제공과 병해충 발생예찰, 기상특보 발령 및 농업재해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파악,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670-2701

“해안단구 보며 시원스레 달린다”

수산~동호 4차선 해안도로 개통

손양면 동호리 해안단구를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개통돼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피서철 해안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손양면 송전리~여운포리간 군도 5호선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해안단구가 위치한 동호리까지 구간을 개통했다.

총사업비 38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도로 공사는 폭 18.5m, 8.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4.24km를 완료했으며, 2009년부터 시행한 수산리~동호리 구간 2.66km가 지난달 준공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소한 2차선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이 컸던 수산리~동호리 구간이 새롭게 4차선으로 확·포장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해안절경으로 꼽히는 동호리 해안단구가 바로 옆에 위치해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도로의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다.

또 피서철을 앞두고 아늑한 해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호해변이 지적에 있어 올 여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변에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과 쉼비치, 입현미술관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해안관광도로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문의 건설방재과 토목담당 670-2773



현북면 일대 맑은 물 공급

우리군 10월까지 생활용수 개발

우리군이 올해 현북면 상광정리·명지리·말곡리 일대에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북면 일대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북면 말곡리 일원에 3억2천만원을 투입해 수도관로 2.1km, PE수도관 1.3km의 공사를 시행했으며, 상광정리와 명지리는 2억원의 예산으로 가압펌프장 1개소, 수도관로

1.6km의 공사를 착수했다. 이달부터 배수관로 매설 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배수관로 및 가압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가압장 3개소, 배수관로 24.6km에 이르는 손양면 간리~동호리, 현북면 상광정리~명지리 간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시행해 오는 2014년까지 마무리 계획인 가운데 지난 2011년까지 46억4,300만 원을 투입해 5.6km의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했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해변관광 활성화 오토캠핑장 조성

현남면 죽도·지경해변 2곳 추진

우리군이 해변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남면 죽도와 지경리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3월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지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죽도해변 철도부지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죽도해변 오토캠핑장은 현남면 시변리 16-1번지 일원에 캠핑장 6,716㎡, 주차장 3,200㎡, 상하수시설 1식 등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투입해 지난 1월 착공, 한 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개장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사용되지 못한 폐철도의 유휴지를 활용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변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

으로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죽도해변 오토캠핑장이 철도부지를 활용해 추진되는 만큼 양양읍 송암리 등 철도부지 주변의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남면 지경리 5-1일원에 조성되는 국민여가캠핑장은 5만9,561㎡(18,000평)으로 이달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2013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양지경 캠핑장내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야영장과 캠핑카 이용시설은 물론, 통나무집, 방갈로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며, 취사장, 샤워장, 체육 및 놀이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문의 미래전략과 전략사업담당 670-2123

농특산물 판매 호조

온-오프라인 52억 매출 올려

우리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판매가 호조를 보이자 판매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농특산물 쇼핑몰(양양몰(www.yangyangmall.co.kr)) 운영 결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52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접속 건수도 2011년 27만2,647건, 2012년 5월 11만4,673건으로 총 38만7,320건이나 됐다.

군은 이에 따라 기존 18개 농가 134개 품목이었던 쇼핑몰에 이달부터 양양농협, 속초양양축협, 설악산밀봉원, 굿앤굿, 워터비스 등 5개 업체로부터 육류, 해프미쌀, 양봉꿀, 유정란, 해양심층수 생수, 소금, 비누 등 7개 품목

을 입점 시켜 판매에 나서고 있다. 농특산물의 판매 홍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행하고 있다.

또 3개의 국내선과 중국 전세기가 운행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에는 양양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4월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대표 상품인 송이주, 송이과자 및 황태채, 생활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오는 22일 중국 다롄노선이 추가로 운항됨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판매장에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원 및 중국과 견 재직공무원 등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담당 670-2703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 발급 인기

올해까지 100명 시행 호응 높아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주민등록이 신규 발급되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서비스를 시행해 지금까지 100명에게 신규로 발급해 줬다.

특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교 3학년생인 것을 감안해 학생들이 발급을 위해 원거리 주소지 읍면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면서 호응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군은 분기별로 양양고와 양양여고에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를 파견, 본인확인 및 지문등록 등 주민등록증발급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만17세 생일을 맞은 자로서 1995년 5월 출생자까지 미발급자 130명

중 30명에 대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군 관계자는 “고 3학생이 대부분이라서 수업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주민등록증은 만17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011년 신규 주민등록증 학교 출장발급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100여명의 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문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670-2241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 2012. 6. 1 ~ 7. 31
- 모집인원 : 2,700명
- 모집분야
 - 일반자원봉사자 : 통역 등 24개 직종
 - 대표단 서비스자원봉사자(DAL) : 각국 대표단 가이드 및 통역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1995.1.28 이전 출생자), 내·외국인으로서 대회전 기간(10일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 분야 및 직종에 따라 교육 등으로 활동일수가 늘어날 수 있음.
- 모집방법 : 개인 및 단체/공개 및 타깃 ※ 단체는 20명 이상, 타깃은 부서자체모집
- 모집구분 : 일반자원봉사자와 리더자원봉사자 구분모집
 - 리더자원봉사자**
 - 대회일 현재 만 20세 이상(1993.1.28 이전 출생자)
 - 고유 업무와 함께 일반자원봉사자와 조직위 간 청구역할 수행
 - 일반자원봉사자**
 - 대회일 현재 만 18세 이상(1995.1.28 이전 출생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조직위 홈페이지(<http://www.2013sopoc.org>)로 신청접수
 - 개인 및 단체로 구분 신청
 - 단체는 단체신청 후 구성원에 대한 개별신청 필요
- 서류심사 :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우대선발 : 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 참여자, 출퇴근 가능자, 단체 신청자, 장기근무 희망자, 외국어 통역 가능자, 기존 봉사활동 경험자, 특수교육 전공자 및 사회복지사 등
- 최종합격 : 교육훈련(사이버, 직무, 현장적응훈련)을 수료한 자에 한함
 - 기본교육(사이버 교육) → 직무교육(1일/5~8시간) → 현장적응훈련(1일/5~8시간)
- 물품지급 및 실비보상
 - 유니폼(상의), 교통비, 급식제공
 - ※ 실비보상은 기프트 카드로 대체 지급될 수 있음
- 숙소지원
 - 원거리 거주자에 대하여(출퇴근 불가능 시) 숙소 제공
- 상해보험 가입
 - 자원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 자원봉사 참여증서 발급 등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법률큰님의 희망세상만들기에 초대합니다

양양군은 “법률큰님”의 ‘희망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6월 22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진다.
 군은 6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법률큰님과 함께 ‘희망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법률큰님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평화재단 이사장이자, 수평공동체 정토회 지도법사로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서원하며 정토회를 설립하

였다.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인간성 상실이 일탈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즉문즉설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이야기 해왔으며 개인의 삶과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아, 질병, 문맹퇴치운동, 인권, 평화통일운동, 생태환경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양양군 강연에서는 ‘희망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www.abductions625.go.kr

대한민국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군인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무총리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문의전화 1661-625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순조’

목재문화체험장 연계 거점 구축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의 유일한 자연생태 거점교육의 장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양양읍 율리 산 29-41번지에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1층에는 893㎡규모의 생태교육장이 들어서고 바로 옆에 야외생태체험장이 6,634㎡규모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1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회를 갖고 짜임새 있는 전시물 설치에 들어갔다.

특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도내에

서는 양양군과 화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조성될 예정으로 생태교육의 거점역할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추진되는 목재문화체험장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바로 옆에 설치될 계획이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최근 자연휴양림을 통해 생태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목재를 재료로 한 전원주택 공급이 늘면서 목재문화체험장도 생태보존과 연계한 체험장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경영담당 670-2714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통계조사명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조사목적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 활용
- 조사대상 : 결혼이민자, 귀화자(이중국적자 포함) 및 그 가족
- 조사기간 : 2012. 7. 10. ~ 7. 31.
- 조사내용 : 가족 구성, 사회생활, 경제활동상태, 자녀 교육 등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실시기관 : 통계청
- 문의사항 : 080-2012-114(통계청 통계대행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주요내용

제도 도입 배경

●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행일 : 2012. 1. 22)

가입 안내

● 임의가입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 가능
-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기준보수 및 보험료

●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5개 ‘기준보수’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 → 가입자는 1등급 ~ 5등급 구간에서 선택 가능

● 고용보험료율 :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능사업 0.25%)

● 등급별 월별 보험료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등 급	기 준 보 수	월 보험료(2.25%)
1등급	1,540,000	34,650
2등급	1,730,000	38,920
3등급	1,920,000	43,200
4등급	2,110,000	47,470
5등급	2,310,000	51,970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350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1588-0075

공휴일 검진 실시 안내

※ 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시간적 장애로 검진참여가 어려운 대상에게 접근성 제고 및 검진 참여율 향상을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검진비용

- ▶ 일반검진 : 전액무료
- ▶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국가암은 본인부담없음)

공휴일검진신청기관

- ▶ 정내과의원 (주중 법정공휴일) - 검진항목 : 일반검진, 위암
- ▶ 중앙산부인과의원 (주중 법정공휴일) - 검진항목 : 일반검진, 유방암, 자궁암
- ▶ 양양연세의원 (매주4째주 일요일, 주중 법정공휴일) - 검진항목 : 영유아검진
- ▶ 신호드림치과의원 (매주 일요일) - 검진항목 : 구강검진
- ▶ 개성소아과의원 (매주 일요일) - 검진항목 : 영유아검진

※ 유의사항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검진은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033-639-9160 www.nhic.or.kr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고요인행위 강력 단속

속초경찰서에서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오토바이의 이용이 늘어나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요인 행위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 기간 : 6. 11.(월) ~ 7. 10.(화) 【1개월】
- 중점 단속대상
 - 음주·무면허운전, 신호위반, 과속,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 50cc미만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 원동기(다륜) 자동차(산악·레저용) 불법 도로운행
- ※ 운전중 담배공초 투기 관련 집중단속(도교법 제68조 : 범칙금 3만원)

《최근 사망사고 사례》

- '12. 6. 9. 06:10경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소재 노상에서 125cc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소녀가 운전미숙으로 자차사고(사망)
- '12. 6. 5. 20:20경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소재 노상에서 50cc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자가 운전부주의로 자차사고(사망)
- '12. 5. 17. 16:45경 양양군 서면 수리 소재 노상에서 경운기를 몰던 60대 남자가 운전미숙으로 단독사고(사망)

속초경찰 알림마당

■ '원터치 SOS 가입자' 일제 정리 알림

- 속초경찰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여성 등을 상대로 '원터치 SO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이후 원터치 SOS 서비스 가입자께서는 개인정보 업데이트로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2010년도 이후 원터치 SOS 가입자
- 장 소 : 가까운 경찰 관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안전계
 - 지구대·파출소
- 문 의 :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안전계 637-5283

속 초 경 찰 서 장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착수설명

- 사업명 : 2012년도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강원권역)
- 사업목적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08.9, 국무총리실)"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치공 및 불법 지하수 시설을 발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기간 : 2012년 2월 27일 ~ 2012년 12월 20일
- 사업내용 : ①기존자료 수집·정리 ②지하수시설 현장조사 ③원상복구공 확인 ④방치공 임시조치 ⑤지자체 업무지원 및 조사자료 제공 ⑥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대상 지역 : 홍천군, 철원군, 영월군, 인제군, 양양군, 강릉시,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 시행/조사 : 국토해양부, 한구지하수·지열협회

『신용보증 지원안내』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강원도가 출연한 신용보증 전문기관으로서 도내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에서 보다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담보없이 신용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설립목적

- 강원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 신용보증대상기업

- 강원도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유통), 서비스, 음식업(간이주점업 포함)등 전업종 (금융업, 콘도미니엄, 불건전오락, 주점업, 도박업, 인대미술소 등 제외)

■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보증한도	■ 소상공인 5천만원까지, 중소기업 8억원까지
보증종류	■ 일반보증, 특별보증, 햇살론,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보증
자금종류	■ 금융기관 일반자금 및 정책자금(시·군 경영안정자금 등)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 연 0.8% ~ 0.9% (전국 최저)
기본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진행절차	1. 보증상담(업체) : 방문상담 / FAX상담 ⇒ 금융기관 자금지원창구에서 상담가능 2. 서류제출(업체)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으로 신청 3. 현지실사(재단) : 사업장 현지확인 및 결정 후 보증서발급 4. 대출실행(업체) :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 시중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 1)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수광빌딩 4층)
- 2) 연락처 : Tel) 638-9780~1 / Fax) 638-9783

장마철, 전기안전관리 요령

-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 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 ※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원을 모두 분리한 후 시험한다.
- 세찬 비바람에 의하여 전선이 끊어진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 고장신고 한다.
 -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분전함의 전원개폐기를 내린 다음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번 없이 1588-7500번
- 번개가 치면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금속체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한다.
- 전기안전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 ☎ 033)635-6252 [국번없이 1588-7500]

태풍 및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편

2012년 6월 1일부터 기상청의 여름철 대표적인 기상특보인 태풍과 폭염특보 발표기준이 개편되었다. 태풍특보는 당초 경보의 9단계가 복잡하므로 1단계로 일원화하고 비와 바람의 강도는 각종 정보나 속보를 통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한 호우, 강풍, 해일의 복합적 위험기상현상에 효율적인 대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폭염특보는 당

초 열지수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좀 더 친근한 기상요소인 일최고기온으로 단순화하였다. 기존의 열지수값은 특보 참고란에 병기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보기준의 단순화와 현실화를 통해 방재기관의 재난대비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이해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속초기상대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태풍	주요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요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급</th> <th>2급</th> <th>1급</th> </tr> </thead> <tbody> <tr> <td>바람(m/s)</td> <td>17~24</td> <td>25~32</td> <td>33이상</td> </tr> <tr> <td>비(mm)</td> <td>100~249</td> <td>250~399</td> <td>400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구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폭염	주요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C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C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